



보도자료

2022. 1. 25. (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담당자 : 조대희 상황대응팀 (010-3706-5539)

민주당 선대위, 시·도당 부정선거감시단 구성·온라인 감시센터 개설

- 소병훈 단장, “공명선거단, 대한민국의 훼손 사전 차단 역할에 큰 기대”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소속 공명선거단(단장 소병훈)이 시·도당 부정선거감시단 구성과 온라인 부정선거감시센터 개설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선거정의와 공정한 경쟁 실현을 위해 설치된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단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17개 시·도당 253개 지역위원회별 부정선거감시단 총 3,056명(1월 24일 기준)을 구성하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 ‘재명이네 마을’에 불법·부정선거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

특히, 이번에 개설된 부정선거감시센터는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등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행위 ▲불법선거사무소 운영행위 ▲정당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 금지행위 등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행위 등을 실시간으로 제보받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단장은 “공명선거단은 민주당의 왕성한 선거운동을 뒷받침하는 한편, 공정경쟁과 선거정의 확보로 민주주의 훼손을 사전 차단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함께하는 3,056명의 적극적인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기대하며, 이번에 신설된 부정선거감시센터도 정권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소속 공명선거단은 소병훈 단장과 신영대, 오기형, 이수진(동작) 부단장을 임명한 바 있으며, 상황대응팀과 부정선거감시팀, 기획팀, 종합민원센터로 구성돼 있다. (끝)